

단장 김종민 의원실 (T.02-784-5920) 간사 오기형 의원실 (T.02-784-4071)  
김교홍 김기식 김성주 김우영 김종민 신동근 오기형 위성곤 이성만 이용우 허영 홍성국

제공일 : 2022. 12. 13.(화)

보도시점 : 즉시

## 진상조사단 “채무 변제로 김 지사 책임 없어지지 않아”

-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로 금융사와 건설사들이 연쇄 부도 위기에 처해 -
- 도민의 혈세와 또 다른 빚으로 보증채무를 갚은 것일 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2일 강원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강원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 2,049억 1,400만원을 변제를 했다”고 밝힘. 그러나 지난 9일 진상조사단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 간의 이런 공방 이런 거에 대해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사과를 거부하였음.

진상조사단은 강원도가 채무를 변제한 것은 다행이나, 이것으로 김 지사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였음. 진상조사단은 “금융사와 건설사들이 연쇄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평가하였음. 진상조사단은 외신들과 한국은행 등도 김 지사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도민의 혈세와 또 다른 빚으로 보증채무를 갚은 것일 뿐”이라며 고의부도로 강원도 재정에 큰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음. 진상조사단은 “좀 미안하게 됐다”는 말로 이 문제를 끝낼 수 없다면서 김 지사의 진정한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했음.

/끝/

[별첨1] 입장문 전문

[별첨2] 강원도 채무변제 상세 내역

## 국민들은 김진태 지사의 사과를 원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증채무 2,050억원 전액을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28일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을 선언하면서 “2,050억원의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번 회생신청의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75일 후에 전액 변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 마지못해 하게 된 것이지만 변제를 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김 지사가 금융시장에 남긴 상처는 너무나도 크고,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진상조사단의 사과 요구에 대해 “정당 간의 이런 공방” 정도로 치부하는 김 지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 지사는 다음 2가지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첫째, 금융사와 건설사들이 연쇄 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9월 28일 김 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선언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외신 블룸버그 통신도 11일 기사에서 한국 자금시장 혼란의 원인이 김 지사의 채무 불이행(“That happened because newly elected Gangwon Governor Kim Jin-tae refused to honor the debt, a deal struck under his predecessor and political opponent.”)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수십조원의 자금을 투입했으나 자금시장은 최근에서야 정책 효과로 미약하게 회복한 정도입니다. 한국은행은 8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높은 신용 경계감이 이어지며 시장 기능은 아직까지 정상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9월 28일 3.28% 수준이었던 CP(기업어음) 91물 금리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이번 달 초 5.62%를 기록한 후, 금융시장의 숨고르기로 12일에 고작 0.01%p 하락하였습니다.

김 지사가 불러온 시장의 공포 때문에 채권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다수의 증권사와 건설사들이 유동성위기에 빠져 있다는 뉴스들이 연일 들리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이미 부도 건설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미안하게 됐다”는 말로 절대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둘째, 고의부도로 강원도 재정에도 피해를 입혔습니다.

강원도는 12월 2,050억원을 상환했지만, 강원도민의 혈세와 또 다른 빚으로 보증채무를 처리한 것입니다. 강원도 자체 재원으로 1,050억원을 마련했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에서 1,000억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채권단에 12억 4,700만원(74일분, 3%)의 연체이자까지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김 지사는 연체이자에 더해 지역개발기금 이자까지 지불하게 된 것에 대한 비판이 두려웠는지, “(지역개발)기금도 내년도에 다 상환할 생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 지급 기간을 줄인다 할지라도 연체이자 12억 4,700만원은, 분명히 김 지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강원도민의 손해입니다.

김 지사는 진상조사단의 사과 요구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라는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김 지사가 사과를 할 대상은 진상조사단이 아닌 국민입니다. 진상조사단은 김 지사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

□ 강원도 채무변제 상세 내역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대출원금	205,000	
이 자	1,995	이자율 4.8%/연, '22.09.29.~'22.12.12.(74일)
연체이자	1,247	연체이자율 3.0%/연, '22.9.29.~'22.12.12.(74일)
원 천 세	499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기지급액	-3,827	4개월분 이자 등 선납(8. 26.)
<b>합 계</b>	<b>204,914</b>	

자료 :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재구성